

정비석 소설 『故苑(고원)』의 해방기 텍스트적 양상 연구

남 지 현*

요약

이 연구는 정비석의 해방기 텍스트인 『故苑』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해방기 텍스트는 주로 식민기억을 서술하며 그 과정에서 식민 시기의 정체성과 관점이 은폐되고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해방기 텍스트를 분석할 때에는 그러한 의미를 읽는 겹눈의 독법이 요구된다. 정비석의 『故苑』에서는 식민기억의 변형과 정체성의 조정뿐 아니라 식민지배 이전부터 온존해 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민족적 가치와 함께 결합하여 식민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서술자이자 중심인물인 남성주체에 의해 구현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인물에 초점을 두고 이 작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이 작품에서는 '1920년대-민주'를 중심으로 한 식민기억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신경증적인 주체의 충동과 억압에 의해 표면적으로 속죄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둘째, 이 작품에서는 민족적 주체인 서술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머지 인물들의 위계를 결정하는 바 그러한 평가의 준거는 이항대립적인 특징을 지닌다. 특히 여성주체에 대한 위계 설정에서는 가부장적 가치가 두드러지며 여성의 육체에 대한 전유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위계와 그에 따른 지배는 식민지배가 작동하는 원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민족적 주체의 표상은 식민주의적이고 봉건적인 폭력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위해서

* 춘천교대 강사

는 탈식민뿐 아니라 탈봉건이라는 이중의 해방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정비석, 고원, 해방기, 기억의 정치학, 가부장적 봉건성, 탈식민

목차

1. 서론
2. 만주를 중심으로 한 기억의 정치학과 신경증적 주체
3. 인물의 위계를 결정하는 민족적 주체의 봉건성과 식민주의
4. 결론

1. 서론

정비석은 1936년에 소설 『졸곡제』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소설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크게 전반기의 ‘연애·세태소설’과 후반기의 ‘역사소설’로 나뉘는데 특히 전자는 연애소설이라는 장르 안에 당시의 세태를 민감하게 담아내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러한 대중 소설에 대한 연구들은 정비석이 대중의 욕망뿐 아니라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구현해 낸 작가라는 점과 그러한 작품에서 노정하는 윤리적 한계를 밝히고 있다.¹⁾ 이처럼 그의 작품에 대한 독해는 시대적 맥락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해방기 텍스트의 경우 친일 협력의 기억과 그것의 조정 과정이라는 관점에

1) 정비석의 소설 연구에 대한 개관은 이영미, 『정비석 장편연애·세태소설의 세계 인식과 그 시대적 의미』, 이영미 외, 『정비석 연구』, 소명출판, 2013, 9-11면 참조.

서 다루어졌다.²⁾

일반적으로 해방기 텍스트에는 식민 지배를 당했던 시기에 대한 기억, 이른바 ‘식민기억’이 서술되는데 그 과정에서 식민지 텍스트가 다룰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을 회고하게 된다. 아울러 해방기 텍스트에는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귀환이 주요한 플롯으로 나타난다. 많은 경우 지리적 귀환은 해방 후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재편되는 정체성 형성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³⁾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식민기억의 서술과 귀환의 서사 속에서 식민시기의 정체성과 관점이 은폐되고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식민시기 친일협력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않은 주체들의 글쓰기에는 식민지 경험의 재현과 반영을 초과하는 진술들이 내재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비석이 1946년에 탈고한 해방기 텍스트 『故苑』⁴⁾에는 이러한 식민기억의 변형과 정체성의 조정뿐 아니라 식민지배 이전부터 온존해 온 가부장적 가치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위계에 따른 지배력을 행사하는 식민주의 역시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양상들이 민족적 주체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인물의 권위에 의

2)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해령의 연구(『‘해방기’ 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19호, 한국여성문학회, 2008.)와 정종현의 연구(『자유와 민주, 식민지 윤리 감각의 재맥락화-정비석 소설을 통해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 문화 재편의 젠더정치학』,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가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당대의 정치 지형 변화 등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품을 조망하거나 기억의 정치학과 젠더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 특성 및 인물 간의 관계 등 작품 내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춰 해방기 텍스트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이해령, 앞의 글, 2008, 234-242면 참조.

4) 정비석의 『故苑』은 1946년 백민문화사에서 발간된 후 1951년 『故郷의 봄』(계몽사), 1953년 『故苑:一名 故郷의 봄』(정양사)으로 재출간된다. 세 판본의 본문을 개관한 결과 몇 개의 어휘를 손질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제목만 변경하여 재출간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저자 후기는 1946년 백민문화사 본을 참고하였으며 본문의 경우 1960년 민중서관에서 발간된 『한국문학전집 20』(고원·애정무한·기타) 판본을 참고하였다. 이후 본문 인용시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인용면수만 기재하고자 한다.

해 실현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대상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방기 텍스트가 지닌 이와 같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은 탈식민적 관점뿐 아니라 탈봉건적인 관점 등을 아우르는 겹눈의 독법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중심인물인 남성주체(현오권)의 특성을 중심으로 『故苑』의 해방기 텍스트적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에서 속이야기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남성주체는 서술자로서의 권위뿐 아니라 나머지 등장인물에 대한 판단주체로서의 권위를 가진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이루어진 그의 서술은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며 그러한 서술 속에는 주체의 가치관, 심리적 갈등, 자의식 등이 빼곡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이 드러내는 주요 양상을 논의함으로써 『故苑』이 해방기 텍스트로서 갖는 함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만주를 중심으로 한 기억의 정치학과 신경증적 주체

“내가 이제 아래에 소개하려는 『故苑』이라는 한 편의 이야기는, 현오권씨라는 분의 수기인 것을 미리 말하여 둔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서사는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 겉이야기의 서술자가 7년 전 북간도 여행에서 우연히 손에 넣게 된 대학노트에 적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한다는 설정으로 서술자는 속이야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속이야기의 내용은 3·1운동 직후부터 십여년 간 만주로 망명한 조선의 지식인 ‘현오권’을 중심으로 ‘김채옥’, ‘오영주’라는 두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애정서사가 주를 이룬다.

해방기의 많은 텍스트들이 당대를 배경으로 한, 재외 조선인들의 귀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독특한 시공간의 설정은 당대의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비껴가 있다.

이는 해방기에 많은 작가들이 일제말 자신의 친일 협력에 대해 반성문 형식의 작품을 제출한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작가 후기에 따르면 오히려 이 텍스트는 정치적 반성문이 아니라 “그릇된 愛情의 길을 밟은 한 男性이 참된 사랑을 熱烈히 追求하여 苦行者的 苦惱에 몸을 태우”는, “자기 자신을 피고로 한 신에게의 고발서”이다.⁵⁾ 이러한 애정윤리적 반성은 당대의 반성문과 구별되며 해방기의 민감한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⁶⁾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작가의 단편 『시일(是日)』(생활문화, 1946.1.)이나 『귀향(歸鄕)』(경향신문, 1946.10.25~11.8 13회 연재)에서는 자신의 짧은 날의 과오로 인해 일제에 의해 죽어간 친구에 대해 참회 형식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손희득 노인이나 ‘왜놈들’ 때문에 ‘그 좋은 고향’을 버리고 만주에 갈 수밖에 없었던 최노인 같은 민족

5) 정비석, 『故苑』, 백민문화사, 1946. 239면.

6) 정비석은 다음과 같은 작가 후기에서 이 작품이 정치가 문학을 압도하던 시기에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쳐 대면할 재능이 없는 작가가 정치적 현실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보다는 인간 본래의 신성과 악마성의 투쟁을 그리는데 주력한, 고백적 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八一五 以後에 많은 文學者들이 直接 政治에 參與한 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타고난 性稟으로 보거나 혹은 인공으로 보거나, 政治와 같은 華麗한 舞臺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저는, 小說的인 構想을 떠나서 제멋대로의 作品이나 하나 써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략) 차차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作品의 舞臺는 滿洲고, 時代는 二十餘年 前인 데다가, 數三人의 知識 青年 男女의 心理的 葛藤을 그린 것이므로, 現下의 現實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感이 없지 않으나, 複雜多端한 現實을 正面으로 부딪쳐 안고 단판 씨름을 할 만한 才能이 없는 저는, 몇 사람의 마음에 反映되는 現實의 破片을 克明히 그려 나가는 길을 取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人間이 本來로 具有하고 있는 神聖과 惡魔性的의 苛烈한 鬭爭을 그려보려고 한 것이 이 作品입니다. 따라서 이 作品은 한 人間의 告白書입니다. 사람이 自己 自身을 被告로 한 神에게의 告發書입니다.” : 정비석, 앞의 책, 237-240면.

적 주체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정비석이 “자기 시대의 사회적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작가”⁷⁾라는 평가와도 부합한다.

정비석은 일제강점 말기까지도 일문으로 작품을 창작해 왔으며 그 시기의 여러 작품에는 일본의 대동아공영론적 관점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제국적 주체”⁸⁾로서의 정체성이 해방기의 작품 속에서 민족적 주체의 정체성으로 조정될 때, 해방기라는 새로운 역사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글을 쓰기 위한 통과의례의 절차로서 반성의 서사가 해방기 문학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故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향과는 구별되는 이질적인 작품이다.

그러한 의외의 설정은 속이야기에서도 발생한다. 속이야기의 서술자 현오권은 3·1운동 전력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그해 가을 출감하였고 독립의지의 좌절, 조국 현실에 대한 환멸로 인해 만주로의 망명을 결심한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만주이주가 격증하였는데⁹⁾ 만주신흥무관학교의 교사로 초청된 현오권 역시 그러한 대열에 합류하는 설정인 것이다. 해방 직후 해외 조선인들의 귀환을 그린 당대의 많은 텍스트가 돌아옴 혹은 돌아온 이후를 모색하는 것과 달리 『故苑』의 인물은 (1919년의 시점에서) 이제 막

7) 정중현, 『제국의 기억과 전유』, 어문학사, 2012, 234면.

8) ‘제국적 주체’는 식민지의 주변부성에서 비롯된 동요와 분열의 의식을 포함하며, 이와 함께 의사-제국주체로서 식민자에 대한 모방의식을 봉합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식민지 후반기 ‘식민지-제국’ 조선 지식인들의 주체성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임의적 개념이다. 식민지(적) 주체라는 기존의 용어로는 제국의 보편주체를 욕망하면서 동시에 식민지인의 현실을 자각한 데에서 기인하는 분열의식을 아울러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정중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제국적 주체를 향한 욕망과 분열』, 창비, 2011, 29-30면 참조.

9) 제1차대전의 종결과 3·1운동은 국내의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한반도에서 이 소설의 무대가 되는 시간대로 넘어온 사람들은 크게 늘어나 1919년에는 25,372명(북간도 11,763명)이었고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오는 청년들도 급증하였다.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과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11, 174-175면 참조.

떠나려고 한다. 그리고 만주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흥무관학교가 폐교되어 인물이 저항의 기회를 상실한 채 몇 년의 세월을 유랑한다는 설정은 이 텍스트가 항일저항운동을 회고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故苑』이 ‘1920년대-만주’라는 시공간을 통해 시도한 것은 무엇일까?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 1931년 만주사변 이전까지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 이른바 15년 전쟁기(만주사변에서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와 관련하여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과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거점이던 만주가 언급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비석 자신 또한 1939년 『삼대』라는 단편소설을 통해 만주를 일본의 승리를 예감케 하는 전쟁의 기운을 맞볼 수 있는 공간이자 이를 통해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남성성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¹⁰⁾

『故苑』의 서사가 선택한 ‘1920년대-만주’는 해방 이전의 식민지-제국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차단 혹은 배제하여 의사-제국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만주는 “신흥무관학교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로, 그 다음은 나와 ‘채옥’의 가정으로 축소된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제시”됨으로써 “식민지 말기 한국 문인들에게 ‘시국 동참의 시험대’로 간주되었던 만주” 표상의 역사적 맥락을 소거한다.¹¹⁾ 이 텍스트에서 신흥무관학교는 시간도 학살 이후 폐쇄되어 현오권의 독립운동은 중지되지만 실제 신흥무관학교는 사멸하지 않고 여러 형태로 계승되었다는 점과¹²⁾ 현

10) 이혜령, 앞의 글, 253면.

11) 이혜령, 앞의 글, 253-254면 참조

12) 서중석, 앞의 책, 212-214면 참조.

오권이 서사 초반에 보여준 애국적 면모로 미루어 볼 때 만주라는 공간의 정치적 의미가 조금하게 차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항일무장 투쟁의 본거지라는 ‘만주’ 표상도 이 텍스트에서는 채옥의 병구완을 위한 여행지로 탈색되어 그 정치적 의미가 한층 더 약화된다. 다시 말해 이 텍스트에서의 ‘1920년대-만주’는 서사 초반부에 독립운동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제시되어 채옥과 현오권의 도피를 정당화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탈각한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 서사가 전체적으로 193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의 시간을 제외한 것은 작가의 실제 삶과 문학사적 측면을 검토해 볼 때 그 의도를 한층 더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다. 임종국이 지적한 바 있듯 정비석은 『조국으로 돌아가다(祖國に歸る)』(국민신보, 1939.4.23)나 『산의 휴식(山の憩ひ)』(신세대, 1943.4~5 2회 연재)과 같은 단편에서 대동아공영론의 사유 하에서 일본에 협력하였으며 1942년 國民文學 4월호 특집 『新しい國民文藝の道』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동원정책에 공식적으로 동의하였다.¹³⁾ 따라서 ‘1920년대-만주’는 ‘일제말-조선’의 기억을 은폐하는 효과를 지닌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일제말-조선’)을 말하지 않는 대신 그 빈자리에 다른 시공간(‘1920년대-만주’)의 기억을 대체함으로써 협력의 기억은 환기되지 않을 수 있다.

앞의 방식이 ‘1920년대-만주’를 통한 망각의 기획이라면 기억의 변형 작업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오권의 만주 망명은 독립운동의 의지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상정되지만 망명한지 1년도 못 되어 서간도대토벌사건으로 학교가 폐쇄되고 독립운동은 불가능해진다. 그

13) “일본은 지금 거국적 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학자도 국민의 일인으로서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문학도 그를 위한 무기로서 크게 공헌하지 않으면 안된다.” : 임종국, 『친일문학론』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출범 기념본, 민족문제연구소, 2002, 337-338면.

후 몇 년을 유랑생활로, 나머지 몇 년을 채옥의 투병과 간병생활로 보내게 된다. 자발적 의지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은 그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을 면하게 한다. 이것은 ‘일제말-조선’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던 기억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변형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기억의 재편 외에도 ‘만주’라는 공간은 현오권의 중혼을 가늠케 해주는 공간이다. 현오권은 구혼 풍습에 의해 결혼한 부인을 고향에 남겨두고 김채옥과 사실혼 상태로 지내며, 그 상태에서 오영주를 사랑한다. 현오권이 오영주와 김채옥이라는 두 여성 인물의 이항대립 속에서 갈등하는 구조가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고향에 남겨진 부인을 서사 밖으로 퇴장시키거나 최대한 가장자리에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본가와 부인을 서사적 시공간의 가장자리인 국토의 남쪽에 두고 오영주가 있는 서울과 채옥과의 정이 있는 만주만을 오고 갔던 것이다.

그러나 만주가 형성하는 지리적 거리감만으로는 인물이 중혼과 복잡한 애정 구도에서 비롯된 죄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죄의식은 다름 아닌 현오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귀결된, 자가당착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때 그 자신이 구혼으로 인한, 애정 없는 결혼의 피해자임을 자각한 현오권이 사랑하는 영주를 택하지 않고 채옥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를 막다른 곳으로 이끌어간 동기는 배신자 오현우에 대한 복수심, 그런 배신자로부터 채옥을 구원해야 한다는 의무감, 채옥에 대한 순간적인 동정심의 복합적인 결합으로 제시되어 있다.

사실 이제 다시 현우의 곁으로 가는 것은 채옥 자신도 죽기보다 괴로운 일이겠지만, 나도 채옥을 배반자에게 돌려 보내고 싶지 않았다 어떤 방도로든 현우의 생활을 파괴하고 싶은 것은 무의식 중에 품은 배반자에 대한 나의 복수심이었는지 모

른다. (중략) 그 순간 채옥의 몸 전체가 웬 일인지 내게는 차마 볼 수 없는 슬픔 덩어리로만 보였다. 채옥은 암만해도 다시는 현우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설움을 안은 채 언제까지고 미친 여자처럼 국경의 거리를 헤매고 있을 것만 같이 상상되었다. (32면)¹⁴⁾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선택으로 인해 중혼과 삼각관계라는 자가 당착적 상황과 그에 따른 불행이 시작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선택을 실행하는 동인이 충동적 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¹⁵⁾

비길 바 없이 애통한 채옥의 시선과 딱 마주치는 순간 나는 인정상 채옥을 이대로 남겨두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서, 무의식 중에 움직이는 기차에서 열른 뛰어 내렸다. (중략) 모든 것이 순간적이에요, 돌발적이었다. 채옥이나 나나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을 어느 순간의 감정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감행한 셈이었다. (32면)

그 순간적인 충동 이후 그는 영주에 대한 사랑을 억압해야 했고 채옥의 간호를 하는 동안에는 조국을 위한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 ‘수기’라는 형식을 통해 이 작품에서 면밀하게 드러나는 현오권

14) 채옥과 함께 만주행 기차를 타기까지 망설이고 갈등하는 장면은 3면에 걸쳐서 제시된다. 신흥사관학교에 도착한 후 서간도대토벌사건, 학교의 폐쇄, 수년간의 유랑생활이 이와 비슷한 분량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비교할 때 이 서사는 내면의 기술에 많은 비중을 할애함을 알 수 있다.

15) 라강은 본능과 충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본능은 인간(동물)을 미리 정해진 특정한 행위로 이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신다. 이것이 본능적 행동이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나 상징적 의미도 있을 수 없다. 반면 충동은 본능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본능과는 달리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한다. 목이 마르면 음료수를 마신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음료수를 마시는가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상징적 의미가 부여된다. 본능은 결정론적으로 작용하지만 충동은 상징계와 접하고 있으므로 예외와 이탈을 허용한다”(김상환·홍준기 엮음, 『라강의 재탄생』, 창비, 2013, 47면). 따라서 현오권이 채옥과의 만주행에 대해 배신자 오현우에 대한 복수라는 의미를 스스로 부여한 것으로 미루어 충동이라 볼 수 있다.

의 내면에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벌어지는 충동과 억압의 길항작용이 빈번하게 서술된다. 영주를 그리워하면서 스스로를 억압하고, 동정심과 책임감으로 채옥을 참고 견디면서도 한편으론 그녀를 불행한 감정에 빠뜨리고, 또 다시 그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는 그는 ‘히스테리자’¹⁶⁾와 유사하다. 이러한 주체의 특성으로 인해 채옥을 선택한 것은 이후 10여년의 시간을 불행한 시간, 그럼에도 그것을 견디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이는 앞서 작가적 차원에서 기억의 재편을 가능케 했던 ‘1920년대-만주’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고통 받고 그것을 견디는 ‘보속’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보속’이 앞서 작가가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애정 윤리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는 않아 보인다. 현오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신경증의 원인은 영주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억압의 반복에서 비롯되는데 영주라는 존재는 최종적으로 조국과 등치되기 때 문이다. 이때 채옥에 대한 동정심과 책임감으로 영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억압할 때 문득 출현하는 영주의 환영¹⁷⁾과 영주를 만나기

16) 억압당한 메시지를 무의식 속에 담고 있는 고통받는 주체를 의미한다. 프로이트가 그들에게서 본 것은 삶의 중압감, 억압당한 성과 사랑, 현실의 무게, 불안과 고통이었다. 히스테리자는 욕망을 만족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주체를 말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아주었던 아버지를, 그러한 아버지의 완전함을 성인이 된 후에도 원한다. 그들은 그러한 완전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이를 수 없으므로 포기해야만 하는 완벽한 사랑으로 인해, 그리고 완벽한 사랑을 기대했던 파트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환상 때문에 생기는 분노와 불안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체이다. : 김상환·홍준기 엮음, 앞의 책, 18-43면 참조.

17) 이 서사에서 현오권에게 ‘영주의 영字’가 환영처럼 세 번 나타나며 마지막에는 ‘영주=조국’으로 등치된다.

(가) 그렇게 말하는 머리에는, 번개같이 영주의 영자가 나타나 보였다. 영주가 없었던들 나는 벌써 이 집을 떠났을는지 모를 일이었다. (12면)

(나) “그렇지만 당신은 언제든 한 번은 저를 이 만주 별판에 내버리구 멀리로 가 버리실 것만 같어요. 자꾸만 그런 예감이 들어요.” (……) “원 쓸 데 없는 생각을 다 하는구료.” 나는 진심으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나의 머릿 속에 번개같이 영주의 영자가 떠 오른 것만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저 그 뿐이었지,

위해 조선행 기차를 타는 충동적 행위는 그의 억압된 무의식에 대한 증상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이 증상은 해소될 수 있는 출구를 닫아 버린다. 히스테리는 언어화 되어야만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에 찾아 온 것은 오직 영주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얼마나 솔직히 고백하고 싶었던가. 그러나 나는 참았다. 영주에게 대해 애정을 표시하는 말을 일체 쓰지 않기로 했었다. 그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괴로움이었으나, 나는 순교자의 쓰라림으로서 한사코 참았던 것이다. (53면)

히스테리를 언어화하여 해소하는 대신 현오권은 민족적 주체라는 정체성으로 돌아가 조국과 영주를 등치시킨다.(각주17번의 다항 참고) 이후 영주에 대한 사랑은 육체와 완전히 분리된 정신적인 것으로, 나아가 영주의 존재와도 무관한 자기충족적 관념으로 변해간다.¹⁸⁾

그 이상 나는 이제 와서 채옥을 내버린다는가 그럴 생각은 도무지 없었다. (37면)

(다) 어느덧 기차는 철교를 건너 만주땅으로 접어 들었다. 이제부터는 남의 땅이거니 하는 생각에 나는 금방 지나 온 조선 땅이 불현듯 그리웠다. 그와 동시에 나의 눈물 어린 망막에는 또 다시 영주의 영자가 환영으로 나타나 보였다. 영주에의 사모-그것은 나에게서는 조국애와 직통하는 사랑이었던지 모른다. 조국애와 개인에게 대한 사랑이 궁극에 가서는 일치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새삼스러이 생각하였다. (58면)

18) 영주는 역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를 변함 없이 생각해 주고 있다. 어쩌면 영주는 내가 사모하는 이상으로,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영주가 더 한 층 숭고하게 여겨졌다. (76-77면)

나는 영주라는 여성을 갖게 된 것을 무척 행복스럽게 생각한다. 영주라는 그 여자 자체는 내가 평가하듯 그렇게 높은 정신의 소유자가 아닐는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나는 각별히 실망을 느끼지 않아도 좋은 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주를 만남으로써 나 자신 속에 샘솟는 정신의 숭고성이지, 결코 영주 그 자신의 정신이나 육체는 아닌 것이다. (80면)

신경증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자각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의 이런 증상은 ‘조국=아버지’라는 대타자를 상실한 제국적 주체의 심리적 분열 상태와 유사하다. 정비석에게 조국은 해방 이전에는 일본이었으나¹⁹⁾ 해방 이후에는 더 이상 일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심리적 분열은 해방기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영주와 조국을 등치시켜 본다면 영주를 선택하지 않고 영주보다 낮은 위계를 차지하는, 부정적인 가치를 함축하는 채육을 선택한 결과 고통을 느끼던 시간은 해방기라는 맥락에서 작가가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을 조국으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중혼과 삼각관계라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회적 억압이 야기하는 신경증적 증상으로 파악할 경우 그것은 제국적 주체가 민족적 주체로 귀환하는 과정의 혼란으로 이해될 수 있다.²⁰⁾ 이렇게 볼 때 이 서사는 작가가 표명한 의도와는 달리 친일협력의 기억에 대한 반성문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19) 정중헌에 따르면 정비석은 1943년 『국경』이라는 수필에서 월경이라는 지리이동을 통해 ‘자신을 최대한으로 보호해 주는 모국의 은혜’를 느꼈음을 서술한 바 있다. 이국 땅에서 필력이든 일본 국기를 만났을 때 차오르는 애국심의 묘사는 일본 국가를 자신의 고국이자 고향으로 향수하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권보드래 외, 앞의 책, 138-139면 참조).

20) 해방기 텍스트를 현재적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연구하기 위한 관점은 일본에 대한 협력/저항 여부나 그에 대한 가치평가보다 텍스트에 나타난 증상을 토대로 식민지적 잔재를 해소하는 진정한 해방을 이루는 것에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글이 이러한 관점을 보충 설명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식민성을 자의적인 역사적 기억 상실의 결과들로 인해 곤경에 처한 조건으로 기술할 수 있다면, 포스트식민주주의 이론적 가치는 부분적으로 이 조건의 망각된 기억들을 잘 다듬어 내는 능력에 있다. 달리 말하면 식민 직후는 식민 과거를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는 임무에 합당한, 개선의 효과가 있고 치유의 힘이 있는 이론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론 작업은 료타르가 회상anamnesis의 정신분석학적 절차, 또는 환자들에게 의견상 사소하게 보이는 세부를 과거의 상황들과 자유롭게 연결시키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현재 문제를 잘 다듬어 풀어 내게 하는 분석-환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과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알 수 있게 된다.이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될 수 있다”(릴라 간디 저·이영옥 역, 『포스트식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1999, 21면).

그가 영주에 대한 사랑을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치환하면서 “순교자의 쓰라림”(53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반성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다.

3. 인물의 위계를 결정하는 민족적 주체의 봉건성과 식민주의

한국근대문학에서 삼각관계는 일반적인 구도이다. 정비석의 작품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방 이후 대다수의 작품에서 삼각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그러한 삼각관계 안에서 한 남성의 시선으로 상반된 개성을 지닌 두 여성을 비교·대조하는 이항대립적 서술은 상투성을 넘어서 하나의 공식처럼 나타난다. 『故苑』에서는 여성 인물 외에도 남성 인물들 간의 이항대립 구조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위계가 드러난다. 그러한 위계는 속이야기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현오권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들에게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남성주체들은 애국지사로서의 면모에 따라 위계가 설정되는데 3.1 운동, 만주 신흥무관학교, 서간도대토벌사건 등 일제 저항의 모티프가 강하게 부여된 민족적 주체로서의 현오권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일제에 협력한 오현우는 배신자이며 훼손된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도덕적 우위에 따라 정해진 위계는 현오권에겐 막강한 힘을 부여한다.

가령 오현우가 친일협력자임이 드러나자 현오권은 오현우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고 그 복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현우의 아내인 채옥을 만주로 데려갈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나머지 인물들도 윤리적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서사 내적으로 승인된 권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인물의 위계에 따른 막강한 권위 부여는 제국주의가 식민화를 정당화할 때 발생하는 논리의 비약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일제에 의해 연구가 촉발된 신라담론이 “옛날에 신라가 그 국가를 유지하려면 일본조정에 의존해야했듯이 현재 조선인이 신라문화를 보존하려면 일본인의 학문에 의존해야 한다”²¹⁾는 논리를 형성하며 지배를 합리화한 것도 이러한 논리의 일환이다. 특히 식민주의는 제국에게 남성성을 부여하고 식민지를 상징적으로 여성화함으로써 식민화를 정당화하며 정치적 지배를 성적 지배의 구조로 환원한다.²²⁾ 정치적 지배를 성적 지배로 은폐하고 집단적 관계의 문제를 개인의 관계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이들 지배 논리에는 상대방의 결여가 곧바로 나의 특권이 되고 그것으로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현오권이 김채옥을 만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행위가 오염주나 심지어 김채옥의 남편(이었던) 오현우에게서조차 한 마디의 비난도 없이 봉합되는 것²³⁾이나 현오권이 채옥과 살고 있음에도 오염주의 애정이 훼손되지 않는 것은 다른 인물들 역시 이러한 논리를 내

21) 일본은 “신라의 국가는 일본과 관계있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다스려졌다”는 일본인 식민자 사이에 널리 통용되던 가설을 전제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듯한 유적과 유물에 주의를 기울이고있다. 이처럼 일본인을 신라의 구원자로 만드는 발상은 물론 생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식민자의 문화를 재현하고 대변할 특권을 식민지 지배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근대 유럽의 제국주의적 사고와 동류이다. : 황종연, 『아이덴티티의 장소로서의 경주』, 『한국문화연구』 Vol.39, 2010, 61-70면 참조.

22) 릴라 간디, 앞의 책, 124-128면 참조.

23) 채옥의 장례 이후 만주에 들른 오현우가 현오권을 찾은 날 오현우는 결코 먼저 채옥의 일을 묻지 않는다. 현오권이 어둠 속에서 채옥의 죽음을 알리는 대화를 보면 현오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과 없이도 오현우에게서 ‘인간이란, 더구나 젊었을 때에는 흔히 과실을 범하기 쉬우니까. 젊은 날의 서로의 잘못을 이제 다시 들추어 낼 것도 없지 않’느나는 진술을 통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더라도 넉넉히 자기를 반성할 수 있게 된다(97면 참조). 만일 서사에서 현오권이 추측한 대로 오현우가 일부러 채옥을 현오권에게 보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남성주체의 문제성을 나타내는 지점이 될 것이다.

면화하는 수동적인 존재임을 의미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현오권이 표면상 민족적 주체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가 행사하는 이러한 권위의 작동방식은 식민 지배의 방식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민족적 주체라는 정체성이 텍스트에서의 식민주의의 재현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인물들의 위계는 남성주체 현오권이 여성에 대해 상정한 다음과 같은 미적 기준에 의해서 규정된다.

전체로서 받은 영주의 첫 인상은 다정하면서도 꽤 이지적이게 느껴졌다. (중략) 그 다정이 음란에 흐르지 않고 (중략) 그 이지가 냉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은 (중략) 정신으로 느껴지는 황홀한 아름다움이었다.

채옥은 단순히 육감적이기보다는, 선정적인 여자였다. (중략) 육체로서 느껴지는 총명이 넘쳐 흘러 보였다. 그러한 육체적 총명이 확실히 나의 관능을 자극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도덕적 양심으로 그런 불측스러운 감각을 쉽게 제어할 수 있었다.

두 여성을 만난 순간 (중략) 그들에게서 이성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는데, 내가 위에서 영주에게 내가 영주에게 것처럼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강렬하게 느낀 것은, 무의식 중에 영주를 채옥과 대조해 보았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9-10면)

현오권의 시선에서 오영주와 김채옥은 이항대립의 관계를 형성하며 ‘오영주-정신적인 것’이 ‘김채옥-육체적인 것’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두 인물에 대한 비교 대조는 서사 전반에 걸쳐 등장하므로 그 모든 예를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서사 초반부에서 채옥은 활달하고 말을 많이 하며 웃음소리가 크고 과장된 표정으로 반응하는 반면 영주는 정숙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띠는 정도로만 웃고 화를 내는 적도 없다. 두 사람의 이런 차이는

“영주를 바라보면, 이야기하는 나 자신이 속계를 떠나, 멀리 선경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던”(10-11면) 현오권에 의해 영주의 우위로 결정된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향으로 세계를 인식하면서 한쪽을 다른 쪽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는 언어가 가부장적 이항대립을 반영하는 방식이다.²⁴⁾ 이 때 영주의 표상은 연약함, 압전함, 정숙함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상과 일치하며 남성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가치를 함축한다. 이처럼 남성들이 요구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부응할 경우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투사하는 작동 방식 역시 가부장적 문화의 기제이다.

가부장적 주체로서 현오권이 내면화한 봉건적 가치는 그가 자신의 아내에 대해 서술하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내는 언제나 그러한 모양으로 웃을 입은 채로였고, 웃고름도 단단히 매어져 있었다. 내가 없는 동안에는 잠자리에 들 때에도 웃고름조차 끄르지 않는 아내임을 알았을 때 나는 남편으로서 회오를 아니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힘껏 힘껏 껴안았다. (19면).

그러나 발길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해서 갖은 구박을 다 주더라도 항거와 배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내가 아닌가. 여하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명맥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현씨 집 사람으로 자처할 아내요, 목숨이 없어져서는 현씨 집 귀신이 되려는 그러한 아내에게 마지막 기대마저 끊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21면)

남편 앞에서가 아니면 언제나 웃고름을 단단히 동여매고 그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여필종부하며 현씨 집 귀신이 되는 아내는 정절과 인종을 실천하는 전통적인 여인의 표상이다. 현오권은 이러한 아내를 사랑하지 않지만 적어도 아내의 이러한 면모에 측은지심을 느

24) 로이스 타이슨 저·윤동구 역,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엘피, 2012, 226면 참조.

끼고 마음이 약해진다는 점에서 봉건적인 가부장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내면화했다고 볼 수 있다. 정비석은 1950년대의 대중적인 작품들에서도 부덕, 인종, 직분의 윤리 등 전통적인 동양윤리의 가치를 당대의 맥락에서 구현한 바 있다.²⁵⁾ 이렇게 볼 때 봉건적 가치는 식민 이전에서 해방기를 거쳐 미국 헤게모니 하에 이르기까지 온존하는 뿌리 깊은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식민지에서의 근대화 과정이 많은 부분에서 봉건적 성격을 유지 또는 강화한다고 볼 때²⁶⁾ 해방 이후의 텍스트 분석에서는 탈식민적 관점뿐 아니라 탈봉건적 관점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여성을 대상화하여 여성이 소유물로 기능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대상화의 기제 속에는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 뿐 아니라 여성의 육체에 대한 전유가 포함되어 있다. 기요맹이 섹사주sexage라 명명한, 육체에 대한 전유에는 여성의 시간에 대한 전유, 여성의 육체에서 나온 생산물에 대한 전유, 여성에게 부과되는 성적 의무, 가족 내 건강한 남성 및 혼자 지내기 어려운 다른 구성원을 돌볼 의무 등이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전유 형식은 총체적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 여성은 독립성, 자율성, 개성에 대한 감각을 빼앗기게 된다.²⁷⁾

현오권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이항대립적인 것으로 나누고 자신이 사랑하는 오영주에게는 정신적인 것의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반면 육체적인 것과 연결되는 김채옥에 대해서는 사랑이

25) 권보드래 외, 앞의 책, 148면 참조.

26) 식민지하에서 이루어진 근대화는 일제의 필요에 의한 부분적인 근대화로, 시설과 제도의 근대화에 집중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근대성에 비해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문화적 근대성은 제대로 성취되지 못했다. 조선의 근대화에서는 오히려 식민통치를 위해 충효사상과 같은 전통적인 인식체제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지니기도 했는데 이러한 현상을 식민지 반(半)봉건성이라고 한다. : 박헌호, 『한국인의 애독작품-향토적 서정소설의 미학』, 책세상, 2005, 58면 참조.

27) 로이스 타이슨 저·윤동구 역, 앞의 책, 224-225면 참조.

아닌 동정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한하면서도 남성에 대한 성적 의무는 그녀에게 부과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다른 종류의 전유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성적 의무만이 부과되며 그러한 부부간의 관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현오권에 의해 여성이 대상화 된다는 것이 더욱 문제적이다.

이처럼 현오권이 민족적 주체라는 정당성에서 비롯된 자신의 절대적 우위에 기반하여 가부장적 이항대립과 여성의 육체에 대한 전유를 통해 행한 폭력은 김채옥에게 가장 심하게 부과된다. 현오권은 수시로 채옥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동정에 불과한 인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채옥과의 생활은 육체에 대한 ‘유린’일 뿐 정신적 사랑은 결여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는 육체적인 것에 대해 끊임없이 혐오를 내비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추구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 정비석이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 ‘유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단 이 작품에서만 아니다. ‘유린’이란 용어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그것을 멸시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다소 비약적이긴 하나 총동원체제에서 일본 여성에게는 재생산을 위한 모성을 강조하며 후방의 어머니 상을 부여하고 조선 여성에게는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성적 서비스라는 역할을 할당했던, 성적 착취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제국주체가 식민지 조선여성에게 요구했던 역할과도 닮아 있다.²⁸⁾

이처럼 남성주체가 여성을 의사-제국주체의 시선에서 타자화하여 바라보는 폭력성은 노루 사냥 장면에서 정점을 이룬다.

28) 정비석 소설에서 일명 ‘성적 유린’ 혹은 ‘폭력’의 문제는 장편 『도회의 정열』, 단편 『운명』(1947), 『과도』(1946) 등의 텍스트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런 텍스트에서는 남성주체의 왜곡된 인식 뿐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여성 주체의 문제점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매춘업을 대동했다는 보고(정진성, 『억압된 여성의 주체 형성과 군 위안부 동원』, 『사회와 역사』 54호, 1998, 82-84면 참조)는 성노예, 왜곡된 성인식 등이 식민경험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마침내 달리는 노루가 조준선 위에 덩실하니 떠 올라 보이자 막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찰나에 문득 조준선 위에 채옥이가-아니 채옥의 눈이 나타나 보였다. 공교롭게도 노루와 총부리와와의 사이에 그어진 일직선 위에, 노루를 몰고 내려오던 채옥이가 머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동이같이 크고 광채 나 보이는 눈이었다. 석양을 정면으로 받아 찬란히 빛나는 그 눈(중략) 그리고 그 순간, 『화르코오네』가 제 아들을 쏘았다고 하던 성의사의 말이 번개같이 떠 올라서, 나는 저 눈을 쏘아 맞추자 하는 생각-생각이라기 보다는 너무 찰나적이에요, 또 너무나 희박한 감각이 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중략) 하지만 놀란 것은 머릿 속에서의 의식 뿐이었고, 손은 이미 예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85-86면)

민족의 배신자를 처벌하는 판관을 자임하며 오현우의 아내를 취한 현오권은 다시 한번 배신자의 사형 집행자와 같은 자의식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채옥을 어떤 종류의 배신자로 보고 그러한 행위를 했는가를 떠나서 그가 방아쇠를 당겼던 동기가 『마테오 화르코오네』의 이야기이며 배신자에 대해 그가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 『마테오 화르코오네』라는 모티프는 현오권의 민족적 주체라는 정체성을 상기시킨다. 그렇게 볼 때 이 장면의 폭력은 민족주의가 지닌 억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족주의란 근본적으로 식민주의를 부정하는 담론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권력 담론”이라는 지적을 상기할 때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아내 살해 모티프나 인간의 악마성으로만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민족주의 담론은 일제 시대 식민주의에 저항할 때 그 본래 목적인 민족의 자유와 진보 획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해방기 탈식민적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폭력과 억압이 될 수 있음”²⁹⁾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

29) 배하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된다. 혹은 해방기 텍스트에 착중되어 있는 민족주의와 가부장적 봉건성, 그리고 식민주의의 그림자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그가 김채옥에게 방아쇠를 당기면서 느꼈던 것이 ‘살의’였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가 여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대상화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조준경 속에 노루와 함께 나타난 채옥의 눈, 그 커다란 눈은 현오권으로 하여금 채옥을 낫선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 이는 그가 채옥을 아주 완벽하게 타자화했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는 심리적 타살을 의미한다.

채옥을 빗맞긴 했으나 순간적이거나 살해의도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채옥을 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채옥이가 오해한대도 거기 대해 한 마디의 변명도 지껄일 수 없었다. 그것은 환각 내지 착각이었을지도 모르나 그런 환각을 일으킬 만한 잠재의식이 전연 없었다고는 부인할 수 없지 않은가? (86면)

채옥은 죽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채옥은 나의 손에 죽고 말았다. 채옥을 죽인 하수인은 틀림 없는 나였었다. (93면)

민족적 주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서술자 현오권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전체 서사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면서 가부장적 이항대립의 부정적 가치에 해당하는 채옥을 심리적으로 죽게 한 것은 해방 이후 귀환한 수많은 민족적 주체들의 서사 속에서 여성이나 어린이, 소수자라는 타자들은 배제되어 있거나 남성에 부속적인 존재로만 서사화되었음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제국의 지배 이전 시

기에도 봉건제의 억압이라는 외피를 한 겹 더 두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이중의 해방이 필요해 보인다.³⁰⁾

4. 결론

주지하다시피 정비석은 당대의 풍속과 세대에 민감한 대중적 작가였다. 그러나 『故苑』은 해방기의 많은 텍스트들이 당대의 시점을 시공간으로 하여 식민기억을 서술하거나 귀환의 모티프를 주로 채택하던 것과는 달리 ‘1920년대-만주’를 주요 시공간으로 설정하고 그 시공간이 지닌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소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질적이며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과의 거리두기는 다른 해방기 텍스트들의 주류적인 경향과 차별될 뿐 아니라 정비석의 작품들이 지닌 일반적인 경향과도 변별되는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해방기라는 공시적 관점과 정비석이라는 작가론적 관점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이질성에 대해 『故苑』이 기억의 정치학을 통해 제국의 기억을 조정하고, 일제 저항을 표상하는 민족적 주체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식민지배의 기제를 일정 부분 재현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규명하였다.

해방을 맞은 작가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제 강점기 자기 행적에 대한 언급을 거친 후 해방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러한 해방기 텍스트들이

30) 이것은 사회주의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기영의 『개벽』에서도 여성주체이자 어린이주체인 언년이에게는 “저 간나는 밤낮 먹는 타령이야.” “이년아! 계집애에게 권리가 무슨 권리아, 건방진 수작마라!” “넌 좀 나서지 마라…… 어른 말끝에.” 따위의 여전히 봉건적인 인식의 발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 이기영, 『개벽』, 김종희 편, 『력사의 자취』, 국학자료원, 2012, 121-123면 참조.

작가의 과거 행적에 대한 해명 혹은 반성을 담지한다고 볼 때 『故苑』은 진솔한 자기반성의 서사라기보다는 암호화된 자기변명에 가까워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기변명의 과정에서 이 텍스트가 어떤 것(1930년대-조선)을 말하지 않기 위해 다른 것(1920년대-만주)을 말하며, 민족적 주체의 권위를 절대시한 나머지 다른 인물들을 대상화함으로써 해방기를 맞은 지식인과 여성에게 각인된 식민주의의 흔적과 봉건성의 잔재를 드러내어 탈식민과 탈봉건의 이중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故苑』은 자신이 진솔한 것에 스스로 균열을 내는 흥미로운 텍스트이기도 하다. 서술자인 현오권은 텍스트 안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닌 존재이지만 텍스트 밖 독자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믿을 수 없는 화자’이기도 하다. 그는 근대적 이성의 힘에 압도되어 자신의 육체를 자아의 일부로 통합하지 못한 채 타자화함으로써 스스로 고통당하는 존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분열하며 자의식에 가득 차 있다. 그가 애국이라는 의장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 민족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이 없었다면 서사 내에서 그가 설정한 위계 및 그에 따른 대상화와 폭력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참된 사랑을 열렬히 추구하여 고행자적 고뇌에 몸을 태우면서도, 인간 본래의 약점인 육신적 욕구를 극복하고 한층 높은 단계로 지양하려는 정신의 절규”가 사랑의 본령이라는 작가의 말 혹은 현오권의 강박적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그가 영주와 같은 방에서 밤을 보내면서 정신의 힘으로 육체적 욕구를 이겨내려던 마지막 장면은 밀랍으로 귀를 막고 마스트에 몸을 묶은 오디세우스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처럼 윤리적 강박관념을 지니면서도 정작 실제 삶에서의 선택은 중혼과 삼각관계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이어가는 남성주체의 양가적 면모는 정비석의 초기 연애·세대소설에서 나타났던 윤리적 인물의 우위라는 특성이 후기로

갈수록 성적, 자본주의적 욕망의 전면화로 변화했던 양상³¹⁾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면 서사 후반부에서 영주는 자신의 육체가 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물로 변화했다. 서사의 마지막에 “선생님 저 꼭 한번만 안아주세요, 꼭 한번만이요!”라고 말하던 영주는 분명 “얼굴도 붉히지 않고 대답하리 만큼 정돈된 표정을 지닌 그대로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주의 모습은 근대적 이성의 지배논리에 쉽게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성주체인 현 오권의 강박적이고 억압적인 모습과 대비를 이룬다. 또한 이러한 인물의 특성은 작가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정비석의 후속작 『장미의 계절』, 『도회의 정열』 등에서 각기 다른 여성 인물들로 분화하고 재연되면서 미묘한 차이와 변화를 나타낸다.

이처럼 『故苑』은 표면적으로는 여타의 해방기 텍스트나 정비석의 다른 작품들과는 구별되는 이질적인 면모가 두드러지지만 남성주체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분석 결과 그 안에 내재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그 작동 방식, 여성 캐릭터의 특성은 이후의 작품들과도 연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정비석의 다른 작품들과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으며 해방 전후를 연결 짓는 유의미한 맥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31) 이영미는 정비석의 연애·세대소설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이영미 외, 앞의 책, 9-48면 참조). 제1기 : 인종·금욕의 윤리적 인물의 우위, 제2기 : 윤리적 당위를 뚫고 상승하는 욕망, 제3기 : 성적 욕망의 전면화, 제4기 : 자본주의적 욕망과 사회문제의 결합, 제5기 : 반복과 퇴행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정비석, 『故苑』, 백민문화사, 1946.

정비석, 『한국문학전집20』(고원·애정무한·기타), 민중서관, 1960.

2. 단행본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김상환·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창비, 2013.

로이스 타이슨 저, 윤동구 역,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릴라 간디 저, 이영욱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1999.

박현호, 『한국인의 애독작품-향토적 서정소설의 미학』, 책세상, 2005.

배하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서중석, 『신흥무관학교과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11.

이기영, 『개벽』, 김종희 편, 『력사의 자취』, 국학자료원, 2012.

이영미 외, 『정비석 연구』, 소명출판, 2013.

임종국, 『친일문학론』-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출범 기념본, 민족문제연구소, 2002.

정종현, 『제국의 기억과 전유』, 어문학사, 2012.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제국적 주체를 향한 욕망과 분열』, 창비, 2011.

3. 논문

이혜령, 『“해방기” 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19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33-266면.

정진성, 『억압된 여성의 주체 형성과 군 위안부 동원』, 『사회와 역사』 54호, 1998, 77-95면.

황종연, 『아이덴티티의 장소로서의 경주』, 『한국문화연구』 Vol.39, 2010, 59-94면.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Cheong Bi-seok's “Gowon[The Spring of Hometown]” as a Novel of Liberation Period

Nam, Ji-Hyun

This study analyzed various aspects appearing in “Gowon[The spring of hometown]” as a novel of liberation period. The texts of liberation period mainly describes the colonial memory and many works deal with the narrative of the return. In that process, the identity and perspective of the colonial period can be concealed and adjusted. Therefore when analyzing the texts of liberation period text, it is required to read the meaning with the compound eyes. In Cheong Bi-seok's novel “Gowon[The spring of hometown]”, not only the transformation of colonial memory and the adjustment of identity, but also the patriarchal ideology that has existed before the colonial times, combines with ethnic values and represents colonialism. These characteristics are mainly realized by the main male character who is also the narrator of inner narrative. Therefore this work should be analyzed in the perspective of that character.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 adjustment of colonial memory centering on ‘Manju’ in the 1920s was carried out, which means the time of the Atonement by the impulse and oppression of the neurotic subject. Second, the narrator, the national subject, has absolute authority and determines the

hierarchy of the remaining characters. Especially in the hierarchical setting of the female characters, the patriarchal values are prominent and the women are appropriated. This hierarchy and its sovereignty can be seen as a representation of colonialism. In particular, the nationalism carried by the national subject in the process served as a basis for rationalizing colonial and feudal violence.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authentic liber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dual liberation of the post-feudalism as well as the post-colonialism is required.

Key words: Cheong Bi-seok, "Gowon[The spring of hometown]", liberation period, politics of memories, patriarchal feudality, postcolony

투 고 일 : 2017년 2월 10일 심 사 일 : 2017년 2월 15일-2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3월 4일 수정마감일 : 2017년 3월 10일